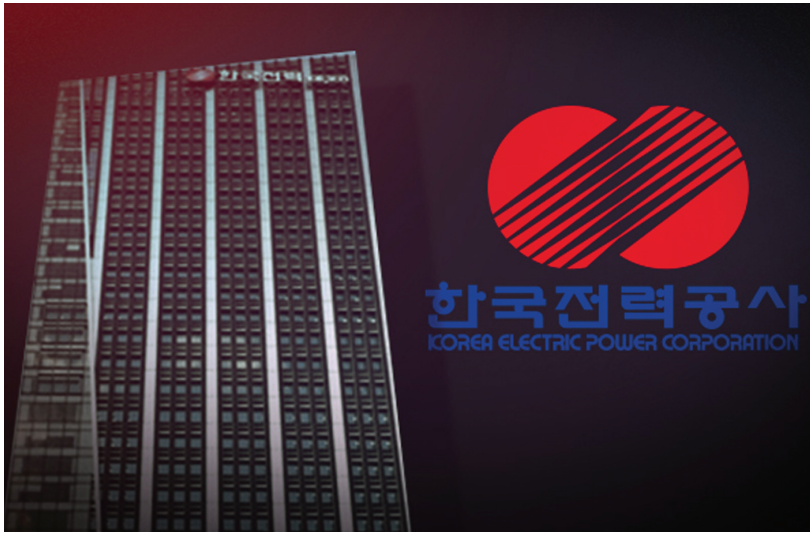


# “20년간 이런 모욕 처음입니다”...직장갑질 폭로한 한전 직원



“결재과정에서 1시간은 기본... 지난주 목요일은 오전 8시부터 점심시간까지 3시간을 내리 깎니다. 그 과정에서 X끼야, 아이 X 등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주말에 집에 못가게 일을 강요하고 새벽까지 일을 시킵니다.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우울증 약도, 정신과 처방도 무용지물입니다. 가슴 떨리고, 두렵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울었다 웃었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20년 근무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개월 불구 사내 갑질 문제 여전 한전 측 “감사실에 신고 접수...절차 따라 조사하고 조취 할 예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사내 갑질’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다. 직장 갑질 문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워킹은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게시된 글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최초로 치는 한국전력공사, 그것도 20년차 차장급이 겪는 일어서 주목받고 있다.** ‘한전 사내문화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올라 온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런 갑질 과정에서 폭행이 3번에 걸쳐 일어났

다”며 “처음 한두 달 전에는 폭언과 함께 등짝을 손으로 찍 하는 소리가 나도록 세계 가격했고, 두 번째는 보고서를 맡아서 제 이마를 찍고 밀치고 나서 던졌고, 세 번째는 모두가 보고 있는 중앙 탁자에서 첫 번째 폭행과 같이 등짝을 2번 가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식으로 신고하고 싸우려 한다”며 “노조 없는(직급상 가입을 못한다는 의미) 차장이 본사에서 혼자 싸울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나고 오히려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두렵고 승진하려면 참으라는 주위 만류도 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맞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 글이 올라온 후 블라인드 회원들은 “클라스 제네(갑질 수준이 어이없는 정도로 심하다는 뜻)”, “강태XX인가”, “2020년도 저런 곳이 있구나”, “저걸(갑질을) 참는 것도 대단”, 원래 한전 (갑질로)유명하다”라는 댓글을 달며 함께 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고위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갑질 문제와 관련해 “아제 감사실에 신고가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짧막하게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갑질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는 사업주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사업주는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약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 측에 알렸는데도 오히려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한전 측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높은 연봉과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자랑하는 한전이 어떤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 폭언 같은 건 많이 없어졌지만, 한전이나 포스코 같은 공기업들은 아직도 근대식 문화가 남아 있다”며 “이는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 “SNS로 사진유포 협박당하면”...청소년 예방교재 나와

### ‘n번방’ 계기 제작...청소년 가장 궁금해할 내용 넣어 사례위주 질의응답 구성...초등-중·고등용으로 나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공유한 일명 ‘n번방’ 사건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계기로 법무부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법교육 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소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이 단초가 됐다”며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법조문 등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거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같은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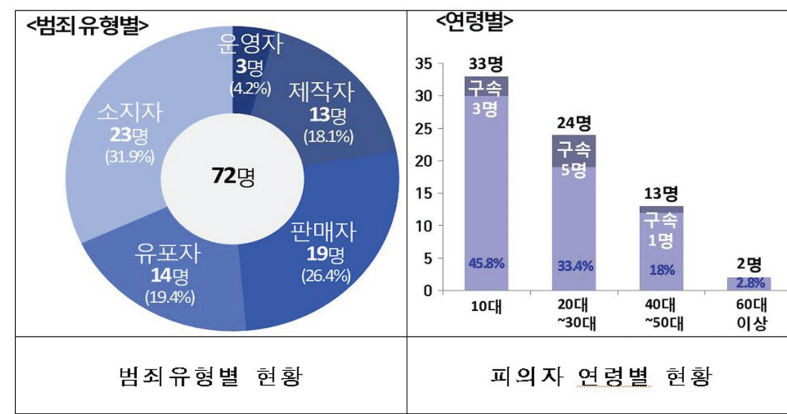
신저 그룹이나 사이버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자세히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예절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됐다. 또 초등용과 중·고등용 책자를 별개로 만들어 연령대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냐’는 질문에 초등용 교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 “인터넷 등에 불법 자료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빨리 신고하라” 등 눈높이 맞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중·고등용 교재는 “사진



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법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제작돼 약 40일 만에 만들어졌다. 향후 처벌이 강화되거나 관련 입법이 될 경우 개정판도 만들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조인호 기자**

## 성착취물 재유포·판매 잠고보니 절반이 ‘조주빈 키즈’

###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집중단속... ‘10대’ 최다



성착취물 유통 범죄에 10대들이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단체 대화방인 일명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후 경기남부 지방경찰청이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이들에 대한 연령대 분석 결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1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승려 신분으로 4개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을 다른 채팅방에 유포한 A씨(32) 등 7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성착취물 제작 또는 소지 및 재유포, 판매와 연관돼 있다. 문제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피의자가 10대라는 점이다. 적발된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다. 이어 20~30대 24명(33.4%),

40~50대 13명(18.1%), 60대 2명(2.8%) 순이었다. 물론 이번에 검거된 10대들이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금전적 이익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제3자에게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조주빈 키즈’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다. 실제 B군(17) 등 13명은 용돈벌이를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했다. 이중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음란물 판매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판매·유포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호기심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